

노동이 아닌 삶을 되찾자!
자본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건설하자!
여유는 쟁취하는 곳이다!

현실적인 자연지

지금은 지방이다 - 스스로
생선하고 스스로 살아가자!
다 많이 일하는 곳
이 아니라 다 자유
롭게 사는 곳이다!

현실적인 자연인을 위한 간지

광주 빵과장미 수박 판매 특별판

다 시 만 나



이 거래를 성사시켜달라.

나는 이 수박을 당신에게 주려고 한다. 당신은 이 거래를 성사시킬 방법을 갖고 와달라.

높은 확률로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할 것이다. 주어진 가격에 상품을 소비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 3일 뒤에 만나서 이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하자.

수박 농사가 시작되었다

결국 땅을 빌리다

빵과 장미에서 만나자

7월 7일 오후 4시

농사 지을 땅 대장치... 30평... 720개의 수박을... 8-9만원에... 수박도 그렇게 되었다

이래저래 돕고 살자

동네 친구 김씨... 약과 모러를 얻어 쓰는 만큼 프롤레타리아 농민 송씨는 동네 친구 김씨네... 노동자 장보러 가는것을 알아... 부귀면에서 마르가 있는...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 대박...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동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나름 재미도 있다. 이렇게 주거나 받거나 살아가고 있다.

금노동이었던... 장가격에 따라 대가를 지불받는다. 그러나 뭇맛이는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